

파라미타 청소년협의회 행사 2편

문화재 “우리가 지킨다”

2개월간 61곳 234개 문화재 모니터링
청소년 자원봉사대, 활동보고서 펴내

‘인양 석약사 법당에 봉안된 탱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법당 뒤편에는 지게와 수레, 장판, 책장 등이 마주잡이로 놓여있어 탱화의 일부는 아예 볼 수조차 없었다. 사찰주변을 깨끗이 정리해 놓고 탱화나 불상 등의 의미를 한편에 적어놓으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레보고 및 우수 자원봉사활동자 시상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120여명의 학생들은 지난 2개월간 경복궁, 종묘, 조계사, 호암사, 국립공원 등 서울지역 문화, 역사유적지 61곳 234개 문화재 모니터링에 나선 문화재 수호자들. 참가학생들은 그 동안의 활동모습을 일지, 장소, 코스, 문화재현황과 느낌 등 세부항목으로 나눠 빠짐없이 기록했다. 이렇게 작성된 활동보고서들은 자치구별로 묶어 <우리구의 진실속으로>라는 타이틀로 이날 첫선을 보였다.

강연을 들으며 다시 한번 문화재의 소중함을 스스로에게 각인시켰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 대상은 석관고등학교 1학년 황정순 학생에게, 최우수상은 금천고등학교 2학년 문소라, 김혜정 학생에게 각각 수여됐다. 이밖에 우수활동자 13명에게도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 특별상 등이 시상됐다. 대상을 받은 황정순 학생은 “문화재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들이 문화재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지, 얼마나 많은 문화재들이 우리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지를 알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문화재들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문화재 보호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인국사찰·치문화·등 만들기 체험

한·일학생 48명 초청

한·일 청소년들이 한국불교 문화체험을 통해 하나가 된다. 파라미타청소년협의회는 백제 부러 현대에 걸친 한국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타임머신(Time Machine)’을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및 유성, 공주지역에서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녕왕릉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라는 주제로 한·일 양국의 청소년 48명을 초청, 서울투어 및 백제 문화권 탐방, 연꽃 및 연등 만들기, 사찰문화(재) 체험, 다(茶)

문화체험 등 다양한 한국불교 문화의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공주 무녕왕릉과 국립박물관, 무왕사, 서산마애삼존불 등 백제문화권 탐방을 통해 일본에 전파된 백제불교 문화를 살펴보고, 새벽·저녁에 불과 발우공양, 법고 등의 소리 체험을 통해 한국불교예절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또한 일본청소년들에게는 한국가정의 따뜻한 가족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국가정방문(Homestay)의 시간도 마련된다. 파라미타청소년협의회 회장 원

년(3~4학년)에는 유석초등학교 3학년 박정수 학생 외 34명이 입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 고학년(5~6학년) 운문·산문부문에는 유석초등학교 5학년 김한길 학생 외 36명이 수상자로 뽑혔다. 시상식은 12월 6일 한글회관 5층 강당에서 불교아동 문학상 시상식과 함께 개최되며, 입상자들은 <어린이 글모음 16권>에 수록, 발간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lipck@buddhapia.com

불교어린이글짓기 공모
입상자 106명 6일 시상

한국불교아동문학회(회장 이준범)가 ‘제22회 전국불교어린이글짓기 공모전’ 입상자 106명을 11월 18일 선정했다. 저학년(1~2학년) 운문·산문부문에는 유석초등학교 2학년 유재용 학생 외 33명이, 중학

대불련 40년, 동문 찾기 캠페인

공동주관: 대불련 총동문회·대불련·현대불교신문사

“은실 속의 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 편이 역세풀이었습니다.”
승실대 불교학생회 사람들은 이 말부터 했다. 선교사가 세운 미션 스쿨, 그 땅 한복판에 ‘불교공동체’를 20년 넘게 꾸준히 일궈다며 이렇게 말했다. 표정은 남달랐다. 불교 불모지에 작은 불국토를 만들었다는 자부심, 고스란히 이들의 얼굴에 담겨있었다.

지난 11월 20일, 승실대학교 불교학생회(회장 박지용·02학년·이하 승불회를 찾았다. 4명 남짓 되는 학생회실에 승불회원과 동문 7명이 모여 있었다. 학생회실은 비좁았다. 하지만 어느 대학교 동아리방은 아니었다. 여법한 ‘법당’이었다.

“하지만 소중한 공간입니다. 불상과 묵탁 들고 이곳저곳 전전하던 80년대



“부처님이 너무 좋아요” 승실대 불교학생회원과 동문들이 합창을 한 채, 미소를 짓고 있다.

기초가 단단한 평생 법우들

초창기 때 비하면, 너무나 큰 법당입니다. 덕분에 학교랑 많이도 싸웠습니다. 개신교 종립학교에 불교 동아리가 가 당나 했겠습니까?”

박준성 법우(99학번·컴퓨터공학과)가 동의를 구했다. 나머지들도 고개를 끄덕거렸다. 잠시 후, 동문모임 바라밀회 김형배 회장(79학번·성일전기 대표)의 말이 이어졌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었을 겁니다. 지난 87년, 승불회 이름으로 도서관 앞 광장에서 첫 야외 행사인 승무공연을

“‘독종’ 소리 들으며 개신교 학교에 법당”
90년 바라밀회 결성, 장학금·행사 지원

올렸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졸도할 뻔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회는 계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승불회의 이 같은 치열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교내에서 불리는 ‘불교독종(?)’이란 이들의 별명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간 승불회는 신입회원을 받으면 불교기초부터 철저히 가르쳤고, 빠짐없이 법회를 열었다. 또 방학 때

도 수행의 고패를 놓지 않고 수행에 매달렸다. 별명의 진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87년에는 학교 내 ‘승실기독인연합회’ 창립에 자극을 제공했으며, 이것도 모자라 각 학과 신우회 조직 결성에 불을 지피게 했다. 승불회의 남다른 점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난 90년에 결성된 동문모임 바라밀회는 재학생 간부 장학금 지원은 물론, 행사 때마다 허드렛일을 돕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자랑스런 동문들

역사 짧지만 열정 대단

‘골수 청년불자’ 120여명 배출

승불회의 역사는 짧다. 하지만 그 결속력과 활동범위만큼은 결코 다른 대학 불교학생회에 뒤지지 않는다. 24년간 배출된 120여 명의 동문은 자신들을 ‘골수 청년불자’라 부를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또 승불회를 거쳐 간 동문들은 현재 학교, 재계, 공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고 있다. 최고참 김영선 동문(73학번·성신여대 중앙도서관을 비롯해 최승현(78학번·현대정보사 취재부장), 초대동문회장 전명철(78학번·한국자동차산업연구원 대표), 유세열(78학번·한나라당 노원갑지구당), 유진관(79학번·농협중앙회), 김형배(동문회장·79학번·성일전기 대표) 이부형(79학번·천안공과대학 교수) 등이 있다. 또 80년대 학번으로는 박범규(80학번·세성기산 대표), 김동준(84학번·남경 글로벌 대표), 권오신(86학번·투텍스타일 대표) 김미량(87학번·용산구청) 등이 있다.



최승현



전명철



김형배

대불련 후원회원 됩시다

불자학생들을 돕고, 대학생 포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자 및 동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참여방법: 일시 후원-1구좌(1만원 이상) / 정기 후원-월1구좌 자동이체

▶문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02)732-0239, 739-0913

▶계좌번호: 국민은행 023-01-0565993, 농협 053-01-252868, 조흥은행 390-01-071917 (예금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후원금 배신 분

▲이현태 10구좌 ▲권혁봉 5구좌 ▲이건우 1.5구좌 ▲김경순 1구좌 ▲이수경 1구좌 ▲이지선 1구좌 ▲이화순 1구좌
11월 27일 현재 총 2863.5구좌

총동문회로 연락주세요

법을 지새우며 구도열정을 불태우고 전국을 누비며 수행현장을 찾았던 대불련 활동 당시의 소중한 법우나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던 지도법사님, 세월의 간극을 넘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고 싶으신 분은 간단한 사연과 연락처를 담아 보내주세요. 보내주시 사연 중 채택된 원고는 본지에 소개될 예정이며, 본지와 총동문회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동원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www.buddhanews.com
대불련 총동문회
www.daebul.or.kr

Advertisement for 'Bamseungil Sabaeta Center' (밤은길 사바타 센터)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URL.

중앙승가대학교 2004학년도 신(편)입생모집

본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합대학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입니다.

<정시모집> “다” 군> 신입학생 모집요강

모집학과 및 정원

Table with columns: 계열, 학과, 일반전형(정원내40%, 정원외), 특별전형, 비교. Rows include Inhuman, Social, and Summary.

- ※ 수시모집 합격자 및 정시모집 동일학군 대 대학 지원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 특별전형
■ 일반전형
■ 지원자격
■ 전형방법
■ 입학정원의 40%내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인성)고사로만 선발함
■ 일반전형
■ 지원자격
■ 전형방법
■ 입학정원의 60%내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선발함

Table with columns: 고교 내신성적, 필기(교리)고사, 면접(인성)고사, 합계. Values: 40%(400점), 40%(400점), 20%(200점), 100%(1,000점)

- 원서교부 및 접수
■ 제출서류
■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 전형일정
■ 기타

편입생모집요강

모집학과 및 정원

Table with columns: 계열구분, 학년, 전산코드, 학과, 모집인원. Rows include Inhuman and Social categories.

- 지원자격
■ 전형방법 및 일정
■ 기타



중앙승가대학교

(우)415-070 경기도 김포시 품무동 159-1
☎(031) 980-7713~7